

## 부부의 유사성과 결혼 만족도간의 관계: 프로파일 유사성 분석\*

고재홍<sup>†</sup> · 전명진  
경남대학교 사회과학부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부부들이 어떤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는지, 부부의 유사성은 그들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통영과 거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기간이 1년-28년 사이의 150쌍의 부부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로부터 가치관, 결혼관, 취미, 성격의 네 가지 영역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부의 프로파일 일치도를 부부유사성 지표로 사용하였다. 주요결과는 첫째, 부부들은 가치관, 결혼관, 취미, 성격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어느 정도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가치관과 결혼관의 유사성이 취미와 성격의 유사성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프로파일로 본 부부들의 유사성 크기 중 유일하게 결혼관의 유사성 크기가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영역의 하위차원별 분석에서는 가치관 영역에서 생활지향 가치관과 관계지향 가치관의 부부간 유사성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부부간 가치관 유사성은 남편보다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모든 영역의 프로파일 유사성 크기와 결혼기간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주요어 : 부부유사성, 결혼만족도, 프로파일 유사성

양자관계에서 두 사람간의 태도유사성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속담에 “유유상종” 즉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서양에도 “깃털이 같은 새들끼리 모인다(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라는 속담이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도 대인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태도와 가치관이 유사하면 개인 상호간에 호감을 증가시키며, 친밀 관계의 대상을 선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예 : Berscheid & Walster, 1978; Byrne, 1971).

더 나아가 사회심리학의 많은 실험 연구들(예 : Schachter, 1951)은 유사성이 호감을 일으킨다는 인과 관계를 확고하게 확립시켜 왔다. 즉 우리는 어떤 모르는 사람이 자신과 상이한 태도를 표명할 때보다는 유사한 태도들을 표명할 때 그에게 더 호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태도유사성이 호감에 미치는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매우 일관성 있게 확인되었으며,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게서도 나타났다. 더욱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인, 인도인, 일본인, 멕시코

\* 본 연구는 2003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많은 조언을 주신 심사위원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그러나 저자의 역량부족과 시간의 부족으로 충분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sup>†</sup> 교신저자 : 고재홍(631-701 경남 마산시 월명동 경남대 사회과학부, kopsy@kyungnam.ac.kr)

인 등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Byrne, 1971).

사람들은 타인들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출신학교, 영화, 음악, 정치, 종교 및 모든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신의 태도를 표명한다. 개인이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을 말하고 상대방에게 각각의 예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물어보는 것은 두 사람이 처음 상호 작용하기 시작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난다 (Kent, Davis, & Shapiro, 1981). 각 개인은 표명된 유사한 태도의 정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응한다. 유사한 견해들의 비율이 클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은 호감을 받게 되며, 유사성의 비율이 작을수록 상대방은 그를 더욱 싫어한다(Byrne & Nelson, 1965). 비록 유사한 태도들의 비율이 상대방에 대한 호감의 크기를 예언해 줄지라도, 이것은 긍정적 자극이 호감에 미치는 단 한 가지 측면에 불과하다. 즉, 한 자극(상대방)내 긍정적 요소들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그 자극은 더욱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유사성 효과는 친밀한 양자관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대인관계에서의 유사성 효과를 균형이론으로 설명하는 Newcomb(1961)에 따르면 두 사람이 서로 친밀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경우, 이들의 관계에서는 비균형(non-balance)이 생기게 되고, 이들은 특정 태도대상에 대해 서로 태도가 불일치 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애편제나 부부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도 실제의 친구들과 연애 상대자들과의 유사성이 관계만족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예 : 홍대식, 1998).

예를 들어 홍대식(199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자신과 데이트 상대방이 성격, 교육수준, 습관 등과 같은 7영역에서의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과 상대방과의 주관적 유사성 지각크기는 데이트 관계개입이나 관계만족 등과 유의한 상관(.40~.48)이 있었다.

그러나 위의 연구에서 살펴본 커플간 유사성은 지각된(perceived) 유사성이다. 실제 커플의 유사성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커플의 자료(쌍자료)가 필요하다. 사회심리학의 대인지각(person perception) 분야는 한사람의 타인(주로 표적인물)에 대한 지각을 연구하는 분야인

반면, 대인간 지각(interpersonal perception) 분야는 사람들(예 : 배우자들)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Sillars & Scott, 1983). 그러므로 연애편제나 부부의 유사성과 이해(understanding)에 관한 연구야말로 대표적인 대인간 지각 연구이다(Kenny & Acitelli, 1994).

#### 유사성과 결혼

유사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 유사성 효과는 배우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람들은 자신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이 크다. 허윤미(2001)의 개관에 따르면, 실제 결혼한 부부들은 교육수준, 지능, 가치관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서 부부간 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신장이나 체중과 같은 신체적 특성의 상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측면에서 부부가 유사하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 혹은 둘 모두일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처음부터 유사한 사람끼리 결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 후, 동일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여러 측면에서 유사해 졌을 가능성이다. 전자의 경우를 동류혼인(homogamy)이라 부른다. 특히 인종, 교육수준, 소득, 및 종교 등과 같은 비교적 객관적인 속성들이 배우자 선택이나 결혼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행동유전학(behavioral genetics) 분야의 연구자들은 부부간의 유사성의 근원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이들은 남편과 부인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닮았는지 반영해주는 유사성의 정도는 사회의 유전적 변이(genetic variance)와 유전구조(genetic structure)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Feng & Baker, 1994). Rushton(1989)의 제안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타인들과의 유전적 유사성을 탐지할 수 있고 자기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람들을 선호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모든 개인에게는 자신의 유전자들을 미래의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만일 자신과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돕는다면, 우리는 유전자 풀(pool)중의 우리의 몫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마침내 우리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장받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유전적으로 유사한 사람(mate)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유전자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 결혼기간과 부부 유사성

결혼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부부간 유사성 크기가 클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가능한 이유는 유사성이 큰 부부일수록 결혼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Hill, Rubin, 및 Peplau(1976)은 자신들의 연구에 참여한 신혼부부들 중 결혼 후 2년 반이 지났을 때, 갈라 선 부부보다 함께 살고 있는 부부들이 여러 영역에서 더 유사한 쌍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부부간에 결혼기간이 지남에 따라 각자의 여러 가지 태도, 가치관, 및 선호들에서 서로의 차이점이 발견될 때 부정적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부부간 차이(비유사성)는 연애 과정보다는 결혼 이후의 부부 관계에 더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Hill & Peplau, 1998). 많은 부부들이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서로 살다보면 상대방이 변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어떤 측면은 결혼이후에 오히려 비유사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결혼기간이 지남에 따라 유사성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예 : 부인)은 자신의 정치적 태도 등을 상대방에 맞춰 바꾸려고 시도하는 반면, 다른 한사람(예 : 남편)은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Levinger, 1988).

또한 처음에 가정주부가 되려는 여자와 결혼한 남자의 경우, 결혼 후 여자가 자신의 공부를 위해 대학원을 진학하려 하거나 직장에 나가려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런 경우 부인의 가정 밖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남편의 기대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Nicola & Hawkes, 1986). 특히 자녀 양육태도나 노후 설계를 위한 저축과 같은 측면은 연애중인 커플에게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측면으로서, 이런 태도의 비유사성은 오히려 연애중인 커플보다는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가능한 이유는 결혼기간이 지남에 따라 부부들이 여러 측면에서 서로 더욱 더 유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Blankenship, Hnat, Hess, & Brown, 1984). Caspi, Herberner, 및 Ozer(1992)는 결혼생활이 지남에 따라 부부들이 더욱 유사해지는가? 만약 그렇다

면 어떤 과정이 부부들 사이의 유사성을 지속되게 하는가? 등을 규명하기 위해 Kelly가 1935-1938에 처음으로 접촉했던 300쌍의 약혼자 쌍들을 대상으로 20년에 걸쳐 수행했던 켈리의 종단연구(Kelly's Longitudinal Study)에서 나온 자료들을 재분석하였다. 그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부부들의 유사성은 더욱 더 증가한다'는 그들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켈리의 종단연구가 적합한 자료라고 생각하였으나, 분석 결과는 결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 유사성이 더욱 더 증가할 것이라는 그들의 가설을 지지하지 못했다.

### 부부 유사성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몇몇 연구들에서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호 지각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Acitelli, Douvan, & Veroff, 1993; Byrne & Blaylock, 1963; Oggins, Veroff, & Leber, 1993). 그러나 모든 가정의 핵심 구성원인 부부가 정서적, 인지적, 심리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부는 그렇지 못한 부부보다 그들의 결혼생활에 대해 더 만족하고 부부 각각의 행복감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Allen & Thompson, 1984).

가족의 기능에 관한 연구들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요인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사성에 대한 평가였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일체감이 난관을 헤쳐 나가는 능력을 촉진시킨다는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이론과 연구가 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일체감의 결여는 가족 구성원들간의 관계 단절을 나타낸다(Antonovsky & Sourani, 1988; Booth & Welch, 1978). 더욱이 부부 유사성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다룬 여러 연구들(Dymand 1954; Farber, 1957; Levinger & Breedlove, 1966)에서는 어느 정도 부부 유사성이 결혼만족도와 정적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예를 들어 부부간 성격유사성을 다룬 여러 연구들(예 : Allen & Thompson, 1984; Corsini, 1956; Ferreira & Winter, 1974)에서 성격이 유사한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에 비해 그들의 결혼생활이 더 행복하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성격이 유사할수록 그 가정에는 가정불화가 적었고, 그들의 자녀들이 정서적, 행동적으로 더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Dawson, 1991; Kline, Johnston, & Tschann, 1991). 이러한 결과들은 부부 유사성이 행복한 결혼생활의 초석이 된다는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다(Fletcher, Rosanowski, & Fitness, 1994).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부부 유사성과 결혼만족도간의 상관을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둘간에는 크지는 않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Acittelli, Kenny, & Weiner, 2001 참조). 그러나 유사성과 호감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 따르면, 태도의 유사성이 호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많은 반면, 성격의 유사성이나 행동의 유사성효과는 상대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많다. 예를 들어 지배적인 사람들은 지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순종적인 사람들 양 쪽 모두로부터 호감을 산다. 경쟁적인 사람들도 경쟁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로부터 호감을 받는다(Riskind & Wilson, 1982). 즉 표적인물의 몇몇 성격 특성들은 응답자의 성격특성과 관계없이, 즉 유사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누구에게나 더 호감을 받는다(McAlister & Bergman, 1983).

태도의 경우도 부부간 태도유사성은 태도 종류에 따라 부부만족도에 차별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간 정치적 태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부부간 갈등의 원인은 되지만, 그들이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을 새로 세우거나 바꿀 힘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는 이 문제로 서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 할 것이다. 즉 이런 측면에서의 부부간 태도유사성과 결혼만족도는 상관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자녀의 양육방식이나 부부관계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서로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쪽이 특정 성행위를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이를 불쾌하고 비도덕적이라 생각하면, 그리고 둘 모두가 상대방 쪽으로 변화(일치)시킬 의도가 없다면 이러한 불일치는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Smith & Peplau, 1990). 특히 일반적 가치관보다는 결혼생활에 관한 중요한 차원의 신념들에서의 유사성이 결혼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Jones & Stanton, 1988). 즉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가치관의

부부유사성은 일상에서 생기는 갈등의 원천을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통적인 부부와 같은 이성관계에서, 양자간의 유사성 크기와 관계만족도 간의 관계는 남성에서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즉 부부간 유사성이 남편보다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성차는 남성의 경우 여자의 얼굴과 신체의 성적 매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상대방 여성의 태도, 신념, 및 취미 등에는 등한시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여성은 상대방 남성의 태도, 신념 및 취미 등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Feingold, 1989).

#### 유사성의 지표들

대인간 지각 연구에서 양자간의 유사성 크기는 각자가 보고한 자기지각들 간의 닮은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특히 단일 측정치로 구성된 측정치(예 : 호감)의 유사성 크기는 두 사람의 측정치(호감)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쉽게 평가할 수 있다(둘간의 호감차이의 절대값). 그러나 두 사람간의 유사성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이미 오래 전에 Cronbach와 Gleser(1953)는 유사성의 지표(indices of similarity)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두 측정치 차이의 절대값뿐만 아니라 변산성, 및 프로파일 유사성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각 지표를 간단히 살펴 볼 것이다.

#### 차이의 절대값

키나 지능과 같이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측정변수(측정치)가 단일 항목인 경우, 두 사람이 유사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측정치의 차이(실제로는 차이의 절대값)를 알아보면 된다. 이 차이가 작을수록 둘 간의 유사성은 커진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로 차이값은 '비유사성' 지표인 셈이다. 또한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차이값이 유의한 차이인지를 알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간 몸무게가 절대값 기준으로 평균 5kg 차이나는 경우, 부부간 체중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혹은 없다고 볼 수 있는지를 알 길이 없다.

**변산성(spread or scatter)**

두 사람의 측정치가 여러 하위 특성들로 구성된 경우, 각 개인의 하위특성 평정값의 변산성(실제로는 변량을 구한 다음, 두 사람의 변산성의 차이값(실제로는 차이의 절대값)을 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 표 1에서 부부간 다섯 특성에 대한 평가값이 나와 있다.

표 1. 변산성 크기를 부부 유사성의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

	남 편	부 인
특성 1	$X_{11}$	$X_{21}$
2	$X_{12}$	$X_{22}$
3	$X_{13}$	$X_{23}$
4	$X_{14}$	$X_{24}$
5	$X_{15}$	$X_{25}$
	$Sx_1^2$	$Sx_2^2$
	$ Sx_1^2 - Sx_2^2 $	

이때 부부의 성격 유사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의 5특성(특성 1~특성 5)까지의 변산성(변량)을 구한 다음, 같은 방식으로 부인의 변산성을 구해야 한다. 실제로 변산성의 지표는 두 사람 각자의 프로파일의 표준편차  $\times \sqrt{\text{평정치의 수}}$ 를 구한 다음, 그 측정치 차이값의 절대값을 사용한다(Kenny, 인쇄중).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로 변산성도 차이값과 마찬가지로 '비유사성' 지표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를 유사성 지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역수 환적이 요구된다.

**프로파일 일치도**

유사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위의 두 측정치가 엄격한 의미에서 비유사성의 지표(즉 수치가 클수록 유사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측정치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 측정치들을 가지고 두 사람의 프로파일(profile)을 작성한 다음, 두 프로파일의 모양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즉 생김새(shape)가 유사할수록 양자간의 유사성(similarity)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그림 1은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 중 부부간 가치관 유사성 크기가 .74인 경우이다. 이 부부의 경우 서로 성공, 쾌락 등의 가치는 높는데 반해, 전통이나 관계에 관한 가치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부간 프로파일 형태는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프로파일 유사성 지표는 두 프로파일간의 상관계수로 산출되기 때문에 측정 변수가 3~10개인 경우가 바람직하다(Kenny, 인쇄중). 앞의 두 지표(차이점수와 변산성)는 그 크기는 알 수 있으나 각 지표의 유의도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프로파일 유사성 지표는 유사성크기(r)의 유의도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하면 둘 이상의 집단(예: 연애 커플 對 부부)간 유사성 크기의 비교 검증이 가능하다.

**문제의 제기**

부부유사성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단일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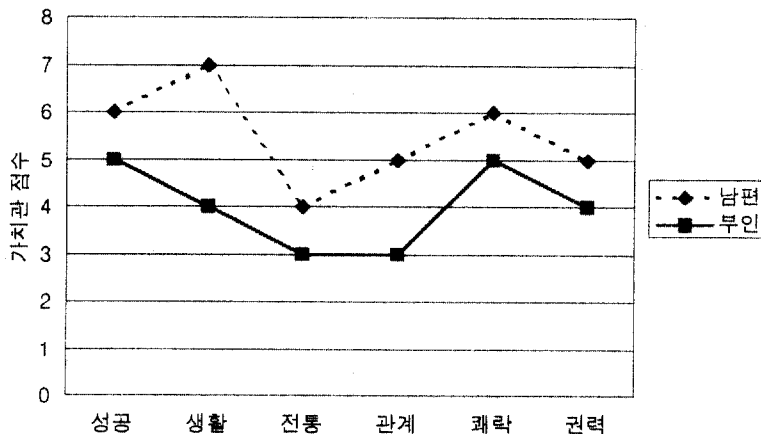


그림 1. 부부간의 가치관 profile의 예(r = .74인 경우)

(예: 지능, 체중)상에서 부부간 상관계수로서 유사성 크기를 언급하고 있다. 암묵적으로 이 상관계수를 해석할 때는 부부가 아닌 사람들(즉 무작위 커플)의 상관인 0 임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아닌 무작위 남녀 커플(이를 가짜커플, pseudo-couple 이라 부름)의 경우도 상관인 0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부간 유사성이 존재하는지는 무작위 커플의 유사성과 비교해야 한다. 실제로 이 방법을 개발한 Corsini(1956)는 150쌍의 기혼 대학생 커플의 성격을 Q-sort 방법으로 살펴 본 결과, 가짜커플의 성격 유사성은 .30인데 반해 실제 커플의 유사성은 .36이었다. 그러므로 부부간 유사성을 부부간 단순 상관계수로 언급하는대는 문제가 있다.

또한 어떤 특성(예: 성격, 자아개념)이 여러 하위영역(혹은 요인)으로 구성된 경우, 각 영역별 유사성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부부유사성을 측정하는 도구가 동시에 여러 하위 측정치로 구성된 경우(예: 16 PF), 그 부부들의 유사성 지표는 여러 개(예: 16개)가 나온다. 이런 경우 대개 어떤 차원의 유사성 지표는 낮게 나오는 반면, 어떤 차원의 유사성 지표는 높게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Eysenck와 Wakefield(1981)는 566쌍의 부부들로부터 Eysenck 성격검사 상의 유사성 크기를 조사한 결과, 가장 낮은 것(-.01)은 외향성 차원이었고 가장 높은 것(.13)은 신경증 차원이었다(허윤미, 2001에서 재인용). 이 경우 부부간 성격이 유사한 것(.13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인가 혹은 유사하지 않은 것(-.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평균 상관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부부의 성격이 유사한가의 여부인데, 하위 차원이 여럿인 경우는 각 차원별 부부간 성격의 단순 상관으로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간 유사성의 크기를 전체 성격의 프로파일 유사성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격, 가치관, 취미, 및 결혼관 등의 부부간 유사성 크기를 주로 프로파일 유사성 지표로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각 영역의 하위 차원에서 부부간 유사성 크기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부간 하위 차원의 차이점수를 이용하였다.

Feng과 Baker(1994)는 부부간의 유사성을 다룬 연구에서 부부간 유사성 크기는 영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견해와 태도에 관한 부부 내(within-couple)상관은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에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의 부부간 유사성 크기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즉  $r=.13\sim.31$ ). 이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프로파일 유사성 지표를 이용하여 부부유사성 크기를 가치관, 결혼관, 취미, 및 성격의 네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각 영역의 부부 유사성 크기와 그들의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상대적으로 어떤 영역의 유사성이 결혼만족도와 더 관련이 높은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러 연구들에서는 특정 영역(예: 성격)의 부부 유사성크기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경성과 한덕웅(2003)은 연애크플간의 정서유사성이 그들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여러 영역에서의 부부유사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를 살펴 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기간에 따른 부부유사성 크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부부일수록, 그들은 결혼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렴가설(convergence hypothesis)에서 주장하듯,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부는 여러 측면에서 서로 유사해 질 가능성이 있다(Feng & Baker, 1994). 두 가지 가능한 이유 중 어떤 이유에서든 결혼기간과 부부유사성은 정적 관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물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부부는 가치관, 결혼관, 취미, 및 성격의 네 가지 영역에서 (프로파일의) 유사성을 보이는가? 유사성을 보인다면, 어떤 영역에서 유사성이 가장 큰지를 알아 볼 것이다. 둘째, 부부간의 유사성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 크기도 증가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아울러 네 가지 영역의 하위차원별 부부 유사성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기간과 부부유사성 크기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방법 및 절차

###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의로 선정된 결혼기간 1년에서부터 28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혼기간을 가진 150쌍의 부부(교사 부부 또는 학부모 부부)들이었으며, 그들의 평균 결혼기간은 13.27년이었다. 자료수집은 165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중 한 명을 설문지 자료를 먼저 수집한 후, 약 1주일 후에 그들의 배우자 자료를 봉인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받는 방법으로 수집하였으며, 부부 모두의 자료 수거율은 약 91%이었다. 부부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에는 일반적 가치관, 결혼관, 취미생활, 성격, 결혼만족도 등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 측정도구

#### 일반적 가치관

부부들의 일반적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Rokeach (1973)가 개발한 34문항의 7점 척도로 구성된 가치척도를 번안하여 참고하였다. 이 척도는 6개 가치요인(성공지향, 생활지향, 전통지향, 관계지향, 쾌락지향, 권력지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각 요인당 두 문항을 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공지향(직장에서의 성공, 과업성취), 생활지향(의욕적인 삶, 평화로운 생활), 전통지향(안정된 사회제도, 전통문화의 계승), 관계지향(성숙된 사랑, 사교활동), 쾌락지향(신나는 생활, 자유와 즐거움), 및 권력지향(용기, 독립심)이다. 각 문항에는 해당항목이 인간의 존재 가치로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7점)'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요인에 해당하는 두 문항간의 상관계수는 .60 - .82로서 높았기 때문에 두 문항의 평균점수를 차원점수로 하였다.

#### 결혼관

부부들의 결혼관을 알아보기 위해 Acitelli 등(2001)이 이상적인 결혼에 관한 조사를 할 때 사용하였던 13가지 조건들 중 본 연구자들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

여 우리나라 부부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여섯 가지 조건들(경제적 여유, 애정표현, 성적만족, 종교나 정치 등에 관한 비슷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 상호신뢰하기, 집안일 함께 하기)을 선정하였다. 부부들에게 6가지 각 항목이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5점)' 사이의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 취미생활

부부들의 취미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선정한 다섯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을 사용하였다. 문항들은 독서하기, 운동하기, 여행하기, 영화보기, 화초 가꾸기 등으로 응답자들은 여가활동으로 각각의 취미활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좋아한다(5점)'의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 성격평정

부부들의 성격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격의 5요인 모델(Five Factor Model)을 측정하는 검사인 Big-Five 성격심리 검사(유태웅, 김명언, 이도형, 1997)를 참고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외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호감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나타낸다. 정서안정성은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자신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교양성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들이 각 차원에서 2문항씩 모두 10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외향성(나는 사교적이다, 나는 적극적이다), 정서안정성(나는 성격이 차분하다, 나는 안정되어 있다), 호감성(나는 따뜻하다, 나는 재미있는 사람이다), 성실성(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착실하다), 교양성(나는 똑똑하다, 나는 상식이 풍부하다)에 대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의 7점 척도 상에 평가하도

록 하였다. 각 차원을 측정하는 두 문항간의 상관계수는 교양성 차원(.66)~외향성 차원(.98)로서 높았기 때문에 (고재홍, 전병우, 2003)에 두 문항의 평균점수를 각 차원점수로 하였다. 전체 자기 성격평가를 위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 $\alpha$ )는 .72이었다.

### 결혼만족도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Acitelli 등 (2001)의 연구에서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조사할 때 사용하였던 6항목으로 된 4점 척도를 참조하였다. 각 문항(예: 당신은 결혼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5년 후에도 결혼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에 대해 매우 불만스럽다 혹은 전혀 확신할 수 없다(1점)에서 매우 만족스럽다 혹은 아주 확신한다(4점)의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6문항 척도는 본래 Veroff, Douvan, 및 Hatchett(1995)이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것들로서, 원래 항목들의 Cronbach의  $\alpha$ 는 .83이었으며 Acitelli 등(2001)이 개정한 6문항의 Cronbach의  $\alpha$ 는 남자 .87, 여자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의 6문항 중 5문항을 사용하였고, 5문항의 신뢰도( $\alpha$ )는 남자의 경우 .78이었으며 여자의 경우는 .76이었다.

### 연구절차

150쌍의 부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설문 조사 후 네 가지 영역 각각에 대해 각 부부들의 프로파일(profile)을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부부간의 프로파일의 일치정도를 그들의 유사성지표로 삼기 위하여 먼저 두 프로파일간의 일치도(유사성)를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 $r$ )로 구하였다. 그런 다음, 이를

Fisher's  $z$ 로 바꾸어 부부간 유사성 크기의 평균을 산출하고, 유사성 크기와 만족도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부부간 성격의 프로파일 유사성 크기(실제로는 Fisher의  $z$ )와 또 다른 변인간의 관계는 두 지표간의 상관계수로 검증할 수 있다(Kenny & Winquist, 2001). 예를 들어 결혼기간에 따른 부부유사성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부부의 유사성 지표(Fisher의  $z$ )와 결혼기간(단위:년)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각 영역별 부부간 유사성 크기와 결혼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4개 각 영역별 부부의 프로파일 유사성 크기(실제로는 Fisher's  $z$ )로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예언하는 단계별(stepwise) 회귀분석을 하였다.

## 결 과

###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에 대한 기술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은 통영 및 거제 지역에 거주하는 임의로 선정된 150 쌍의 부부들로서 결혼기간은 최단 1년에서부터 최장 28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며, 전체적인 결혼기간은 비교적 정규분포에 가까웠다. 다음의 표 2는 본 연구 결과 분석에 사용된 150쌍 부부들의 결혼기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 영역별 부부 유사성

부부들이 각각 가치관, 결혼관, 취미, 성격의 네 가지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여 주는지, 유사성을 보이는 측면들이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부부간 유사성이 가장 큰지를 알아보았다. 표 3은 4가지 영역별 부부유사성의 크기의 평균이다.

먼저 네 가지 영역의 부부간 프로파일 유사성 크기를 산출한 결과, 가치관( $\bar{r}=.595$ ), 결혼관( $\bar{r}$

표 2. 본 연구 참여 부부(150쌍)의 결혼기간 분포

결혼기간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5	28	합계
빈도	1	3	5	1	3	2	6	6	13	17	17	13	8	8	9	3	7	9	5	6	2	3	1	2	150
%	.7	2.0	3.3	.7	2.0	1.3	4.0	4.0	8.7	11.3	11.3	8.7	5.3	5.3	6.0	2.0	4.7	6.0	3.3	4.0	1.3	2.0	.7	1.3	100

결혼기간의 숫자는 햇수를 나타냄.



표 3. 부부간 네 가지 영역의 유사성 크기

	N	유사성 평균( $\bar{r}$ )
가치관	146	.595*
결혼관	140	.615*
취미	140	.265*
성격	150	.255*

\* $p < .05$  (양방검증)

=.615), 취미( $\bar{r}=.265$ ), 및 성격( $\bar{r}=.255$ ) 등 모든 영역에서 부부간 프로파일이 유의하게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ps < .01$  양방검증)।

다음으로 4영역의 부부간 유사성 크기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영역별 부부의 유사성 크기를 변량분석한 결과, 영역별 유사성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F(3, 384)=20.56, p < .01$ . 각 영역의 유사성 크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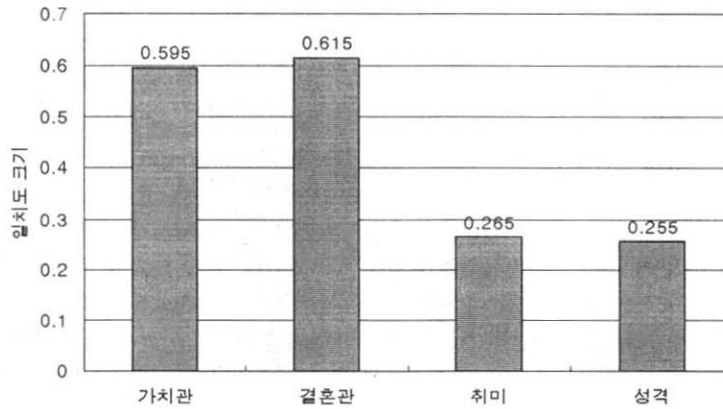


그림 2. 네 가지 영역의 부부간 유사성 크기

이를 사후검증(LSD)한 결과, 가치관과 결혼관의 유사성 크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 1) Kenny와 Winquist(2001)에 따르면, 평균 상관계수의 유의도 검증은  $Z = \bar{Z} \sqrt{(K-3) \cdot N}$ 의 공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bar{Z}$ 는 각 쌍의 상관계수를 변환한 Fisher's z값의 평균치이고 K는 측정치의 수, N은 쌍의 수이다.
- 2) 변량분석은 각 부부의 프로파일 유사성 지표(r)를 Fisher's z값으로 변환한 후, 이를 변량분석하였다.

취미와 성격의 유사성 크기간에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자(가치관과 결혼관)는 후자(취미와 성격)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ps < .05$ ). 즉 부부는 취미와 성격보다는 가치관과 결혼관에서 서로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유사성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먼저 연구참여자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남편과 부인 중 어느 쪽이 큰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편( $M=3.26$ )과 부인( $M=3.20$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49)=1.55, ns$ . 그러나 부부간 결혼만족도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 $r=.62, p < .01$ )를 보여 주었다.

전체 프로파일 유사성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가치관, 결혼관, 취미, 및 성격 등 4영역의 부부간 프로파일 유사성 크기로서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예언하는 단계별 회귀분석을 하였다(표 4 참조).

표 4. 각 영역별 프로파일 유사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가치관	결혼관	취미	성격
남편의 결혼만족도	.012	.175*	.035	.104
부인의 결혼만족도	.117	.231**	.083	.137

수치는 회귀계수( $\beta$ )를 나타냄, \* $p < .05$ , \*\* $p < .01$

위의 표에서 보듯, 여러 부부유사성 중 유일하게 부부간 결혼관 유사성 크기는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beta=.175, p<.05$ ). 즉 부부의 결혼관이 유사할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4영역의 부부유사성 크기는 중 오직 결혼관 유사성 크기만이 유의미하게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었다( $\beta=.203, p<.05$ ). 공통적으로 부부간 결혼관의 유사성은 남편과 부인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영역의 유사성은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무관하였다.

**부부간 성격차이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다음으로 다섯 성격차원별 부부간 성격차이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5이다.

표 5. 각 성격차원 별 부부간 성격차이, 결혼기간, 및 부부 결혼만족도간의 상관계수

	의향성 차이	호감성 차이	성실성 차이	안정성 차이	교양성 차이
남편만족도	-.063	.009	-.044	.107	.019
부인만족도	-.033	-.087	-.120	.043	-.025

\* $p<.01$

각 성격 차원에서의 남편과 부인의 성격차이(절대값)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또한 성격차이 크기도 부인의 결혼만족도와도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부부간 가치관차이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차원별 부부간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6이다.

6개의 부부가치관 차이점수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사이에는 어느 것도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그러나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생활지향, 관계지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p<.05$ ). 즉 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부부간 차이가 클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부간 가치관 차이는 남편보다는 부

표 6. 각 가치관 차원별 부부 가치관 차이와 결혼만족도간 상관계수

	성공 지향	생활 지향	전통 지향	관계 지향	쾌락 지향	권리 지향
남편만족도	-.053	-.096	.031	-.066	-.039	.054
부인만족도	-.085	-.288**	-.084	-.177*	-.102	.023

\* $p<.05$ , \*\* $p<.01$ (양방검증)

인의 결혼만족도와 부적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부부간 결혼관차이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영역별 부부간 결혼관의 차이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7이다.

표 7. 각 영역별 부부 결혼관 차이와 결혼만족도간 상관계수

	경제적 여유	애정 표현	성생활	종교와 정치관	상호 신뢰	가사
남편만족도	-.080	-.194*	-.106	-.029	-.165*	-.107
부인만족도	-.213**	-.148	-.179*	-.071	-.209*	-.106

\* $p<.05$ , \*\* $p<.01$ (양방검증)

연구자가 선정한 6개 영역에서의 부부간 결혼관 차이 점수와 결혼기간, 남편 및 부인의 결혼만족도간 상관을 구한 결과,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관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결혼만족도와 관계에서 남편은 애정표현과 상호신뢰의 중요성에서 부인과 차이를 느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반면 부인은 경제적 측면, 성생활, 및 상호신뢰의 중요성에서 남편과 차이가 클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부부간 결혼관의 차이에 따른 결혼만족도가 남편과 부인에게서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상호신뢰의 중요성에서는 공통적이었으나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애정표현)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요인(경제적 측면, 성생활)이 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외로 종교와 정치관의 차이나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차이는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부간 취미차이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부부간 분야별 취미의 유사성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8이다.

표 8. 각 분야별 부부 취미 차이와 결혼만족도간 상관계수

	독서	운동	여행	영화	화초
남편만족도	-.003	-.065	.046	-.038	-.012
부인만족도	-.037	-.051	-.049	.052	-.032

연구자가 선정한 5 분야에서 부부간 취미선호와 결혼기간, 남편 및 부인의 결혼만족도간 상관을 구한 결과, 모든 분야별 취미차이는 부부 양쪽의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 결혼기간에 따른 네 가지 영역의 유사성의 크기

결혼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부부들의 가치관, 결혼관, 취미, 성격에 대한 유사성의 크기가 큰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네 가지 각 영역의 부부간 프로파일 유사성 크기와 결혼기간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가 표 9에 나와 있다.

표 9. 결혼기간과 네 가지 영역의 부부유사성 크기간의 상관계수

	가치관	결혼관	취미	성격
결혼기간과의 상관계수	-.107	-.099	-.065	.054

위의 표 9에서 보면 결혼기간에 따른 네 가지 영역별 프로파일 유사성 크기 사이의 상관계수는 가치관( $r = -.107$ ), 결혼관( $r = -.099$ ), 취미의 유사성( $r = -.065$ ), 및 성격의 유사성( $r = .054$ ) 등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네 가지 영역의 하위차원별 부부 유사성과 결혼기간과의 상관에서도 유일하게 성격영역의 성실성 차원에서 결혼기간이 길수록 부부간 성격차이가 증가하는 것,  $r(148) = .217, p < .01$ , 이외에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는 차원은 없었다.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표는 부부의 유사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결혼기간은 부부의 유사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으며 주요한 결과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파일 유사성 지표를 근거로 한 분석에서 부부들은 가치관, 결혼관, 취미, 성격의 모든 영역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유사성을 보이는 네 가지 영역의 유사성의 크기가 다르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 분석한 결과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단순 주효과 검증한 결과 가치관과 결혼관의 유사성 크기는 취미와 성격의 유사성 크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프로파일 유사성 지표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견해와 태도에 관한 유사성이 가장 높았으며 성격과 심리적 안정감은 낮은 수준에서부터 중간 수준의 유사성을 보고한 선행연구(Feng & Baker, 1994)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둘째, 부부간 유사성 크기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가치관, 결혼관, 취미, 성격의 네 가지 차원 중 유일하게 결혼관의 유사성만이 남편과 부인 양쪽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의 하위 차원인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안정성, 및 교양성 등 각 성격차원에서의 남편과 부인의 성격차이(절대값)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며 부인의 결혼만족도와도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부부들의 여섯 가지 가치관(성공지향, 생활 지향, 전통 지향, 관계 지향, 쾌락 지향, 권리 지향) 각각의 차이점수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는 어느 것도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생활지향 가치관, 관계지향 가치관 유사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앞의 두 가지 가치관에서 부인의 가치관이 남편과 유사할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부부간 가치관 유사성은 남편보다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는 부부가 아닌 연애크플간의 정서유사성이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의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이경성과 한덕웅(2003)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것이다.

셋째, 결혼기간에 따라 전체적으로 네 가지 영역의 유사성의 크기는 증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가치관, 결혼관, 취미, 성격과 결혼기간과의 상관계수는 이들 네 가지 영역의 유사성과 결혼기간과는 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횡단연구로 수행된 본 연구와는 달리 종단연구의 자료를 이용한 Caspi, Herbener, 및 Ozer(1992)의 연구에서도 결혼기간과 부부 유사성간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것과도 일치하였다. 이들은 1970년 조사한 부부간 CPI 성격점사상의 부부간 성격 상관계수의 평균이 .19이었으나, 10년 후의 부부간 성격 상관계수의 평균이 .13으로 오히려 약간 낮아졌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결혼기간과 부부유사성의 크기가 무관하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결혼기간과 유사성의 크기간의 관계가 직선적(linear) 관계가 아닌 곡선적(curvilinear) 관계일 가능성 때문이다. 즉 부부유사성은 결혼초기에 서서히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부들을 결혼기간에 따라 3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각 집단의 부부유사성 크기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4영역 모두에서 집단에 따른 부부 유사성의 크기는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자료에 근거할 때, 하나의 대안적 설명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 유사성 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가치관, 결혼관, 취미, 성격 등 단지 네 가지 영역에서만 조사를 하였다. 이들 측면의 결혼기간, 결혼만족도, 및 부부 유사성간의 관계는 어떤 측면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점차 측정영역을 넓혀 다양한 측면에서의 부부유사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의 부부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의 선정에서 연구자의 임의성이 많이 개입되었다. 즉 각 영역의 측정을 위한 문항들이 기존의 전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측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sup>3)</sup>. 예를 들어 빅 5 성격영역

을 측정함에 있어, 전체 문항을 사용하지 않고 각 차원에 해당하는 2개 문항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취미의 측정에서도 사전 자료나 근거도 없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취미영역을 선정하였다. 이 영역들이 부부들의 대표적인 취미활동 영역이라는 보장은 없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유사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이외의 다양한 종속변인들을 살펴볼 수 없었다. 결혼만족도 이외에도 부부간 갈등 크기나 대처방식, 의사소통 방식과 같은 변인들(이종선, 권정혜, 2002)을 선정하여 부부유사성과 이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이 통영, 거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었고, 표집이 임의표집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150쌍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단일 시점에서 결혼기간이 다른 부부 쌍들에 대한 횡단연구이었다. 결혼기간에 따른 부부간 유사성 크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상의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매우 드문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이자관계(dyad relations) 연구이며, 부부 유사성의 지표를 기존의 방법(예: 차이점수)이외에도 새로운 방법(프로파일 유사성)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양자간의 유사성을 측정할 때, 그 측정치가 여러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런 경우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하위차원별 개별 상관계수가 알려주는 정보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각 하위차원별 단순 상관은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는 어떤 성격 차원에서는 다르고(역상관), 어떤 차원에서는 유사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전체적으로 부부의 성격 유사성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부부간 유사성의 크기를 전체 프로파일 유사성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부부나 연애크플, 및 단짝 친구와 같은 일상에서 중요한 이자관계를 다루는 후속 연구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

3) 이 부분은 한 심사자의 좋은 지적사항이었음을 밝혀 두며 감사드린다.

이런 주제는 개인을 연구단위로 하는 전통적인 심리학의 입장에서 방법론적으로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이유와 피험자 확보와 같은 연구수행의 현실적 이유 때문에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들만 극복된다면, 특히 사회심리학이 중요하게 다루는 여러 종류의 대인관계 중 매우 중요한 관계중 하나인 부부 혹은 연애키플간의 후속 연구들은 보다 흥미로운 사실들을 밝혀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고재홍, 전병우 (2003). 두 자기평가 편향과 자존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2), 1-16.
- 이경성, 한덕웅 (2003). 친밀한 관계에서 양자간 정서반응의 유사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pp. 377-378.
- 유태용, 김명언, 이도형 (1997). 5요인 성격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및 조직*, 10(1), 85-102.
- 이종선, 권정혜 (2002). 부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1(2), 313-330.
- 허윤미 (2001).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의 동질결혼.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0(2), 429-448.
- 홍대식 (1998). 데이트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2(2), 199-226.
- Acitelli, L. K., Douvan, E., & Veroff, J. (1993). Perceptions of conflict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 How important are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 5-19.
- Acitelli, L. K., Kenny, D. A., & Weiner, D. (2001). The importance of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of partners' marital ideals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8, 167-185.
- Allen, A., & Thompson, T. (1984). Agreement, understanding, realization, and feeling understood as predictors of communicative satisfaction in marital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15-921.
- Antonovsky, A., & Sourani, T. (1988).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family adap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9-92.
- Berscheid, E., & Walster, E. (1978). *Interpersonal attraction*(2nd ed.) Reading, MA : Addison-Wesley.
- Blankenship, V., Hnat, S. M., Hess, T. G., & Brown, D. R. (1984). Reciprocal interaction and similarity of personality attribut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 415-432.
- Booth, A., & Welch, S. (1978). Spousal consensus and its correlates : A reassess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23-31.
- Byrne, D. (1971). *The attraction paradigm*. CA : Academic Press.
- Byrne, D., & Blaylock, B. (1963). Similarity and assumed similarity of attitudes among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636-640.
- Byrne, D., & Nelson, D. (1965). Attraction as a linear function of proportion of positive reinforc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659-663.
- Caspi, A., Herbener, E. S., & Ozer, D. J. (1992). Shared experiences and the similarity of personalities : A longitudinal study of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281-291.
- Corsini, R. (1956). Understanding and similarity in marriag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2, 327-332.
- Cronbach, L. J., & Gleser, C. C. (1953). Assessing similarity between profiles. *Psychological Bulletin*, 50, 456-473.
- Dawson, D. A. (1991).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health and well-being : Data from the 1988 National Health Interview Study on Child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573-584.

- Dymond, R. (1954).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marital happiness.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8, 164-171.
- Farber, B. (1957). An index of marital integration. *Sociometry*, 20, 117-134.
- Feingold, A. (1989). *Gender differences in effects of attractiveness and similarity on opposite sex attraction : Integration of self-report and experimental finding*. Unpublished manuscript, Yale University.
- Feng, D., & Baker, L. (1994). Spouse similarity in attitudes,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havior Genetics*, 24, 357-364.
- Ferreira, A. J., & Winter, W. D. (1974). On the nature of marital relationships : Measurable differences in spontaneous agreement. *Family Process*, 13, 355-370.
- Fletcher, G. J. O., Rosanowski, J., & Fitness, J. (1994). Automatic processing in intimate contexts : The role of close relationship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888-897.
- Hill, C. T., & Peplau, L. A. (1998). Premarital predictors of relationship outcomes : A 15-year follow up of the Boston Couples Study. In T. N. Bradbury(Ed.),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nes, M. E., & Stanton, A. L. (1988). Dysfunctional beliefs, belief similarity, and marital distress :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7, 1-14.
- Kent, G. G., Davis, J. D., & Shapiro, D. A. (1981). Effect of mutual acquaintance on the construction of convers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7, 197-209.
- Kenny, D. A. (in press). Dyadic indices. In D. A. Kashy, & W. Cook(Eds.), *Method for the analysis of dyadic data*.
- Kenny, D. A., & Acitelli, K. (1994). Measuring similarity in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417-431.
- Kenny, D. A., & Winquist, L. (2001). The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sensitivity : Design, components, and unit of analysis. In J. Hall & F. Bernieri(Eds.), *Interpersonal sensitivity : Theory, measurement, and applications* (pp. 265-302). Englewood Cliffs NJ : Erlbaum.
- Kline, M., Johnston, J. R., & Tschann, J. M. (1991). The long shadow of marital conflict : A model of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97-309.
- Levinger, G. (1988). Can we picture "love"? In R. J. Sternberg & M. L. Barnes(Eds.), *The psychology of love*(pp. 139-158). CT : Yale University Press.
- Levinger, G., & Breedlove, J. (1966). Interpersonal attraction and agre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367-372
- McAlister, H. A., & Bergman, N. J. (1983). Self-discourse and liking : An integration theory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51, 202-212.
- Newcomb, T. M. (1961). *The acquaintance process*. NY : Holt, Rinehart, & Winston.
- Nicola, J. A. S., & Hawkes, G. R. (1986). Marital satisfaction of dual-career couples : Does sharing increase happines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 47-60.
- Oggin, J, Verrof, J., & Leber, D. (1993). Perceptions of marital interaction among black and white newly-we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494-511.
- Riskind, J. H., & Wilson, D. W. (1982). Interpersonal attraction for the competent person : Unscrambling the competition paradox.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2, 444-452.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Y : Free Press.
- Rushton, J. P. (1989). Genetic similarity, human altruism, and group select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2, 503-559.

Schachter, S. (1951). Deviation, rejection, and communication.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46*, 190-207.

Sillars, A. L., & Scott, M. D. (1983). Interpersonal perception between intimates : An integrative

review.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0*, 153-176.

Veroff, J., Douvan, E., & Hatchett, S. (1995). *Marital instability : A social and behavioral study of the early years*. CT : Greenwood.

## **The Relation between Spouse Similarity and Marital Satisfaction : An Analysis on Profile Similarity**

**Jaehong Ko and Myeongjin, Jeon**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nam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was performed to examine how much Korean spouses have similarities in several areas, the relation between their similarities and year of marriage, and the relation between their similarities and marital satisfaction. One hundred and fifty spouses having different year of marriage and living in Kyungnam, Korea participated in the present research. The index of spouse similarity was profile similarity calculated on Kenny(inpress)'s suggestion. The result showed that spouses are very similar each other on profile similarity index in all of area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spouses in the Big-five personality traits did not related with their marital satisfaction. Of the 4 areas that showed similarity, just only the similarity of marage couple's perceptions about ideal marriage related with marital satisfactions of husbands and wives. The magnitude of spouses' similarities had no relation with years of marriage. Although the data of the present research was collected by cross-sectional method,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at of several longitudinal studies(eg. Feng & Baker, 1994).

**Key words : spouse similarity, marital satisfaction, profile similarity**